# Ⅱ. 2011학년도 1차 시험 해설

## 언어 영역

| | | | | |
|---|---|---|---|---|
| 1. ② | 2. ④ | 3. ① | 4. ② | 5. ④ |
| 6. ③ | 7. ② | 8. ⑤ | 9. ① | 10. ① |
| 11. ① | 12. ③ | 13. ⑤ | 14. ② | 15. ⑤ |
| 16. ① | 17. ⑤ | 18. ⑤ | 19. ② | 20. ③ |
| 21. ② | 22. ① | 23. ③ | 24. ③ | 25. ③ |
| 26. ③ | 27. ⑤ | 28. ① | 29. ④ | 30. ⑤ |
| 31. ⑤ | 32. ③ | 33. ③ | 34. ① | 35. ④ |
| 36. ④ | 37. ③ | 38. ⑤ | 39. ④ | 40. ⑤ |
| 41. ⑤ | 42. ② | 43. ③ | 44. ④ | 45. ① |
| 46. ④ | 47. ② | 48. ④ | 49. ③ | 50. ③ |

### 1.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 이해 정답 ②

어법에 어긋난 부분이 없고, 문맥의 흐름이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②이다. '찾으신대서'의 '-ㄴ대서'는 '-ㄴ다고 하여서'가 줄어들 형태로, 받침 없는 동사의 어간이나 'ㄹ' 받침인 동사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는 말이다.

① '하마트면'은 어법에 어긋난 말이고, '하마터면'이 어법에 맞는 말이다. '하마터면'은 '조금만 잘못하였더라면'이라는 뜻으로, 위험한 상황을 겨우 벗어났을 때에 쓰는 말이다.

③ '~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 '~ 훌륭하다는(관형어) 생각이(체언 + 조사) 듭니다.'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④ '~ 불확실한 패스와 수비가 불안하여 ~'라는 표현은 수식의 범위가 모호하여 어색하다. '~ 패스가 불확실하고 수비가 불안하여 ~'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⑤ '~ 없다라는 뜻으로 이르는 ~'에서 '-라는'은 남의 말이나 특정 의미 등을 직접 인용(따옴표 사용)하는 경우에 쓰이는 말이다. 남의 말이나 특정 의미 등을 간접 인용하는 경우에는 '-는'을 써야 한다. 그리고 문맥상 '~ 이르는 ~'의 쓰임도 어색하다. 따라서 '~ 없다라는 뜻으로 이르는 ~'은 '~ 없다는 뜻으로 쓰이는 ~'으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2. 접미사의 특성과 쓰임에 대한 분석적 이해 정답 ④

<보기>의 ㉠~㉢을 모두 충족하는 접미사가 쓰인 것은 ④의 '학자답게'이다. 여기에 들어 있는 '-답다'는 일부 명사(어근) 뒤에 붙어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의 뜻을 나타내면서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므로 ㉠과 ㉡을 충족한다. 그리고 '~ 훌륭한 학자답게 ~'에서 드러나듯이, 단어보다 큰 구(句)인 '훌륭한 학자'에 붙은 경우이므로 ㉢도 충족한다.

① -롭다 : 모음으로 끝나는 일부 어근 뒤에 붙어 '그러함' 또는 '그럴 만함'의 뜻을 나타내면서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②, ③ -대다, -거리다 : 동작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일부 어근 뒤에 붙어 '그런 상태가 잇따라 계속됨'의 뜻을 나타내면서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⑤ -스럽다 :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러한 성질이 있음'의 뜻을 나타내면서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그런데 ①, ②, ③, ⑤의 문장에 쓰인 접미사들 중 단어보다 큰 구(句)에 붙은 것은 없으므로 ㉢과는 거리가 멀다.

### 3. 한글 맞춤법의 이해 및 구체적 적용 정답 ①

<보기>의 ㉠과 ㉡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바르게 묶은 것은 ①이다. '낮잡다(실제로 지닌 값보다 낮게 치다, 사람을 만만히 여기고 함부로 낮추어 대하다)'는 '낮다'와 '잡다'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말로,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업신여기다(교만한 마음에서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다)'는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말인데, 어원이 분명하지 않아서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 경우이다.

② '부리나케'는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 경우이다. '시꺼멓다'는 접두사 '시-'와 형용사 '꺼멓다'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말로,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은 경우이다.

③ '며칠'은 말의 원형을 밝히어 적은 경우로 보기 어렵다.

④ '꺾꽂이'는 '꺾-(동사 어간)'과 '꽂-(동사 어간)'과 '-이(명사를 만드는 접미사)'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말로,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⑤ '아재비'는 '아저씨' 혹은 '아주버니'의 낮춤말로,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이 아니다.

### 4. 문법 개념('융합')의 이해 및 구체적 적용 정답 ②

선택지의 밑줄 친 단어들은 모두 두 단어 이상이 줄어서 한 단어로 된 말들이다. 그런데 이 단어들 중에서 ②의 '남부럽잖다'는 의미론적 기능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므로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남부럽잖다(남의 좋은 점이나 우월한 점이 부럽지 아니하다)'는 '남부럽지(남의 좋은 점이나 우월한 점이 부럽지)'와 '않다'가 줄어서 한 단어로 된 말인데, 줄어든 단어와 줄어들기 전의 구(句)를 비교해 볼 때 서로 의미상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의미론적 기능에 변화가 생긴 경우로 보기 어렵다.

① 시원찮다 : 마음에 흡족하지 아니하다. / 몸이나 몸의 일부가 좀 건강하지 못하다.

③ 같잖다 : 하는 짓이나 꼴이 제격에 맞지 않고 눈꼴사납다. / 말하거나 생각할 거리도 못 되다.

④ 귀찮다 :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괴롭거나 성가시다.

⑤ 심심찮다 : (흔히 '심심찮게'의 꼴로 쓰여) 드물지 아니하고 꽤 잦다.

**5. 조사 '으로'의 의미 및 쓰임에 대한 이해** 정답 ④

④의 '사장은 뉴욕 지사장으로 김 부장을 파견했다.'라는 문장에서, 밑줄 친 '으로'는 결과를 나타내는 의미가 아니라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조사 '으로'가 결과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인 문장의 예로는 '누나는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을 45킬로그램으로 줄였다.'가 있다.

**6. 혼동하기 쉬운 단어의 맞춤법과 쓰임 이해** 정답 ③

③의 '마을 이장이 소에게 받쳐서 꼼짝을 못한다.'에서, '받쳐서'는 문장의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다. 이 문장의 의미를 고려할 때, 소가 마을 이장을 받은(받다 : 머리나 뿔 따위로 세차게 부딪치다.) 상황이므로 '받다'의 피동형인 '받히다(→ 받혀서)'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① 바치다 : 신이나 웃어른에게 정중하게 드리다.
② 받치다 : 화 따위의 심리적 작용이 강하게 일어나다.
④ 밭치다 : '건더기와 액체가 섞인 것을 체나 거르기 장치에 따라서 액체만을 따로 받아 내다.'라는 의미를 지닌 '밭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⑤ 받치다 : 어떤 물건의 밑에 다른 물체를 올리거나 대다.

**7. 어법에 대한 이해 및 구체적 적용** 정답 ②

㉡의 질문과 관련하여 '부서지다'가 맞는 표현이고 '부숴지다'는 틀린 표현이므로, 둘 다 맞는다는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답변에서 참고로 언급한 내용도 적절하지 않다. '부서뜨리다'가 맞는 표현이고 '부숴뜨리다'는 틀린 표현이다.

※ 유의해야 할 복수 표준어
- 게을러빠지다 / 게을러터지다
- 기세부리다 / 기세피우다
- 뒷갈망 / 뒷감당
- 들락날락 / 들랑날랑
- 딴전 /딴청
- 철따구니 / 철딱서니 / 철딱지

**8. 피동 표현의 특성에 대한 분석적 이해** 정답 ⑤

㉤의 문장에 들어 있는 '때리다'는 '손이나 손에 든 물건 따위로 아프게 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로, 이 말에는 피동 접미사가 결합할 수 없다. 그런데 '때리다'는 파생된 단어가 아니므로, 파생된 단어에는 피동 접미사가 결합할 수 없다고 이해한 ⑤는 적절하지 않다. 참고로, 비문인 ㉤의 문장이 올바른 피동 표현이 되도록 고친다면 '동생이 철수에게 맞았다.' 정도가 적절할 것이다.

① ㉠의 능동문 형태는 '고양이가 쥐를 물었다.'이다. 이를 파생적 피동문으로 바꾸면 '쥐가 고양이에게 물렸다.'가 되므로, 능동문의 주어('고양이가')는 피동문의 부사어('고양이에게')가 된다.
② ㉡의 '사기 사건의 범인이 밝혀졌다.'는 '-어지다'에 의한 피동문이다. ㉡의 능동문 형태는 '사기 사건의 범인을 밝혔다.'이므로, 이 문장을 '-게 되다'에 의한 피동문으로 바꾸면 '사기 사건의 범인을 밝히게 되었다.'가 된다. '-어지다'의 구성과 '-게 되다'의 구성을 서로 비교해 보면, 두 문장에서 '범인이'와 '범인을'이라는 말이 다르므로 외견상 구조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③ ㉢의 능동문 형태는 '곧 사실이 드러난다.'이다. 이 능동문의 주어 '사실이'가 통사적 피동문에서 그대로 주어로 쓰이고 있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④ ㉣의 문장에 들어 있는 '빼앗기다(←빼앗기게)'는 '빼앗다'라는 동사에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된 말(파생적 피동)이다. 그리고 이 문장은 '~ 빼앗기게 되었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게 되다'에 의한 피동문(통사적 피동)이다.

**9. 글다듬기(퇴고) 방안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①

<보기>의 첫째 문단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과도한 경쟁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문단의 완결성 측면에서 별 문제가 없으므로 굳이 다른 내용을 첨가할 필요가 없다. 설령 완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용을 좀 더 보강한다고 하더라도 ①에서 언급한 '경쟁의 패자는 승자를 축복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을 첨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첫째 문단의 중심 내용(우리나라의 과잉 경쟁 실태 및 원인)과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② ㉠ 바로 앞의 문장 '사람들은 왜 경쟁에 몰두하는 것인가?'를 고려할 때, ㉠은 '경쟁의 승자에게 과도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이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③ ㉡의 앞뒤 내용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그런데'를 '그러니'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④ ㉢의 앞부분 형식 '경쟁이 과도해지면 경제적인 낭비가 초래되고 불평등이 심화되어'를 고려할 때, ㉢은 '사회 구성원의 행복한 삶이 위협받는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⑤ ㉣과 관련하여, '정도나 형편이 표준에 가깝거나 그보다 약간 낫다' 혹은 '허용되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웬만하다'가 표준어이다. 따라서 ㉣은 '웬만하다'의 활용형인 '웬만한'으로 바꿔야 한다.

**10. 개요 수정 및 보완 방안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①

<보기>는 정규직 파트타임제의 도입을 제안하기 위해 쓰려는 글의 개요이다. 'Ⅱ. 정규직 파트타임제의 장점'의 '3. 정부' 항목 '가. 고용 창출 효과'라는 내용으로 볼 때, Ⅲ에 '정부 :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한 고용 불안 가능성'이라는 항목을 추가한다는 ①은 적절하지 않다. Ⅰ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정규직 파트타임제는 하나의 일자리를 두 명의 정규직 근로자가 나누어 갖는 제도로서, 정규직을 늘리기 위한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② 'Ⅲ-2-나. 가사 노동 증가 우려'는 'Ⅱ-2-나. 육아 및 가사 문제의 해결'이라는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이므로, 개요의 통일성 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Ⅳ의 하위 항목들은 정규직 파트타임제의 정착을 위해 기업, 개인, 정부 차원에서 노력할 사항들에 관한 내용이다. 따라서 Ⅳ는 '정규직 파트타임제 정착의 요건'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④ 'Ⅳ-2-가. 보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그 의미가 모호하므로, '보수보다는 삶의 질에 가치를 두는 태도'로 구체화하여 그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⑤ Ⅰ에서 언급한 정규직 파트타임제의 의미, 그리고 'Ⅱ-3-가. 고용 창출 효과'를 감안할 때, Ⅴ에 '고용 창출 기회의 증대'라는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 [11~14] 지문 해제

**시(시집)나 철학(철학책)이 어려운 이유 및 차이**

시집이나 철학책이 다른 장르의 글들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이유를, 구체적인 비유(유추)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한 글이다. 시인과 철학자는 친숙한 세계가 아니라 원초적으로 낯선 세계를 표현하기 때문에 시집이나 철학책은 어렵게 마련이다.

시는 기존의 말로는 말할 수 없는 것(낯선 상처 혹은 어떤 감각)을, 새로운 말을 만들어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종의 아이러니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가 어려운 것이다. 철학은 개념들을 창조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엮음으로써 새로운 사유 문법을 만드는 학문이다. 철학이 어려운 이유는, 철학자가 창조하여 엮은 개념들이 기존의 사유 문법으로는 잘 포착되지 않기 때문이다.

### 11. 구체적 정보의 이해 및 확인 정답 ①

글의 마지막 문단에 '시인이 물속으로 직접 들어가 온갖 물고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표현하는 존재라면, 철학자는 그물로 끌어올린 물고기를 다시 확인하고 만져 보는 사람'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 내용에서 '시인이 물속으로 직접 들어가 온갖 물고기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은, 시인이 낯선 세계를 직접 체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①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즉, 낯선 세계를 직접 체험하여 이를 사람들에게 말로 전해 주는 것은 철학자가 아니라 시인이다.

② 셋째 문단의 '철학은 개념들을 창조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엮음으로써 새로운 사유 문법을 만드는 학문이다.'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셋째 문단의 후반부에서 '철학책이 어려운 것은, 철학자가 만들어 놓은 그물(사유 문법)만 보아서는 그것으로 무슨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아직 알 수 없기(낯설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첫째 문단에서 시집이나 철학책은 다른 장르의 글들보다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밝힌 다음, 그 이유는 원초적으로 낯선 세계를 표현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⑤ 둘째 문단에서 시인의 생경한 표현에 적응하면 과거와는 다른 느낌으로 세계를 보고, 그에 따라 삶을 새롭게 영위하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 12. 서술 방식의 유사성 파악 정답 ③

제시된 글은 시(혹은 시집)나 철학(혹은 철학책)이 어려운 이유와 그 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글인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유추)의 서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글의 핵심 논지가 드러나 있는 마지막 문단, 즉 '시인이 물속으로 직접 들어가 온갖 물고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표현하는 존재라면, 철학자는 그물로 끌어올린 물고기를 다시 확인하고 만져 보는 사람이다. ~'에서, 비유(유추)의 서술 방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가장 유사한 서술 방식이 쓰인 것은 ③이다. 즉, 문학과 어학을 각각 지하도와 육교에 비유(유추)하여 설명하면서 그 차이를 알기 쉽게 드러내고 있다.

①에는 분석의 방식, ②에는 대조의 방식, ④에는 묘사의 방식, ⑤에는 인과의 방식이 사용되었다.

### 13. 정보의 적용을 통한 구체적 작품 감상 정답 ⑤

㉠의 정보를 적용할 때 ⑤의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을 바로 뒤의 내용과 연계하여 정리하면, 시인은 낯선 세계(감각, 경험 등)를 새로운 말로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종의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시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⑤의 '용진'은 시의 낯선 표현에 공감하기 어려운 이유를, '우리(독자)가 아이러니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② 시인이 느낀 것은 기존의 말로는 표현될 수 없는 낯선 상처 혹은 어떤 감각이라는 내용, 새로운 말을 강제했던 시인의 낯선 감각이라는 내용과 연결된다.

③, ④ 시는 기존의 말로는 말할 수 없는 것으로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이러니가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그러한 낯선 표현에 공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 14. 단어 구조 및 기능에 대한 분석적 이해 정답 ②

㉡의 '엮음'은 문장 내에서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품사는 동사이다. 즉, '엮음으로써'는 '엮-(동사 어간) + -음(명사형 어미) + 으로써(조사)'로 분석되고, ㉡의 '엮음'은 동사의 명사형이다. 이 점은 '엮음으로써' 앞에 '논리적으로'라는 부사적 표현이 쓰이고 있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 단어의 구조가 같은 것은 ②의 '웃음'으로, 이 단어 역시 동사의 명사형이다. '웃음으로써'도 '웃-(동사 어간) + -음(명사형 어미) + 으로써(조사)'로 분석되고, 이 말 앞에 '크게'라는 부사적 표현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①의 '믿음', ③의 '설움', ④의 '삶', ⑤의 '느낌'은 모두 명사화 접미사 '-음(ㅁ)'이 붙어서 이루어진 파생 명사이다.

### [15~19] 작품 해제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도선(道仙) 사상에 바탕을 두면서, 설화적인 형식과 비현실적인 사건이 엮여서 이루어진 애정 소설이다.

세종 시절 안동에 사는 백선군은 꿈에 본 선녀 숙영을 잊지 못하다가, 결국 옥련동에서 만나게 되어 두 사람은 부부가 된다. 두 사람의 사랑을 시기한 시녀(侍女) 매월(梅月)은, 백선군이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간 사이에 숙영을 모함하여 자살하게 만든다. 그러나 장원 급제를 한 백선군이 돌아와 신선의 신비한 약을 써서 숙영을 살려 내어 행복하게 살고, 그 후 하늘에 올라가 선인이 된다는 줄거리로 되어 있다.

전기(傳奇) 소설 계통의 기이성(奇異性)과 우연성이 도교의 신선 사상과 결합되어, 이야기의 골격이 권선징악(勸善懲惡)과 해피엔딩으로 이어지고 있다. 효(孝)에 앞서는 애정 중심의 새로운 가치관이 드러나 있어, 조선 후기 사회의 가치관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 주제 : 현실을 초월한 진실한 사랑

### 15. 인물 및 사건에 대한 반응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⑤

제시된 글의 후반부('~ 이는 공연히 매월로 하여금 간계를 꾸미게 하는 기회가 된지라. ~')에 ⑤의 의문(~ 매월의 간계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따라서 지문을 읽고 난 후에도 ⑤와 같이 의문을 가지는 것은 사건의 양상이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반응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②, ③, ④는 모두 지문에 제시된 장면이나 사건의 전개 양상과 관련하여 각각의 인물들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의문 사항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 16. 인물의 태도 및 심리에 대한 분석적 이해 정답 ①

백공은 낭자의 방에서 남자의 소리가 들린 일과 관련하여 부인을 불러 의견을 물으며 상의하고 있다. 따라서 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요사이 집안이 적적해서 도적을 살피려고 집안을 두루 돌아 ~"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집안의 안전을 살피는 과정에서, 며느리(낭자)의 방에서 남자의 소리가 나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어 며느리에 대한 의혹을 가지게 되었다.

④ '백공이 매월의 대답을 듣고 더욱 수상히 여겨 매월을 꾸짖기를 ~"이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백공이 매월에게 한 말 "~ 너는 모름지기 착실히 살펴 그 왕래하는 놈을 잡아 고하라."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 17. 두 인물의 말에 담긴 의미 및 태도 비교 정답 ⑤

A는 과거를 보러 가기 위해 당분간 낭자와 헤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선군이 한 말이다. 전답(논과 밭)과 노비 등이 많고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급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선군은 풍족한 경제적 상황을 근거로 들면서, 과거를 보러 가지 않고 낭자의 곁에 있겠다고 말하고 있다.

B는 굳이 과거를 보러 갈 필요가 없다는 선군의 말(A)에 대해 낭자(아내)가 한 말이다. 세상에 나서 입신양명(立身揚名 :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떨침)하여 부모께 영화를 뵘이 장부의 도리이고, 규중처자에 연연하는 것은 불효가 된다고 언급하면서 속히 과거를 보러 떠나라고 말하고 있다. 즉, 낭자는 유교적 이념과 도리를 근거로 들면서, 선군에게 속히 과거를 보러 떠날 것을 종용하고 있다.

① A의 경우 상대의 처지를 걱정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말로 보기는 어렵다.

② A와 B 모두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 하는 인물들의 의도와는 거리가 멀다.

③ A와 B를 비교할 때, A가 오히려 개인적인 가치가 우세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④ 명예를 추구하는 태도는, 오히려 B에서 언급한 '입신양명' 관련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 18. 문맥 및 상황에 적절한 단어의 적용 정답 ⑤

㉠ 앞의 상황에서, 선군은 낭자와 헤어지기 싫어서 과거를 보러 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다가 낭자의 말을 듣고 그 말이 합당하기 때문에 부모께 하직을 고하고 과거를 보러 떠난 것이다. 이러한 상황 및 인물(선군)의 심리나 태도를 고려할 때, ㉠에는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라는 의미와 관련된 말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⑤의 '기어이'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혹은 '결국에 가서는'이라는 의미를 지닌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앞의 상황에서, 백공은 낭자에게 방 안에서 남자의 소리가 들린 이유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라고 추궁하고 있다. 그리고 ㉡ 뒤의 내용을 보면, 낭자는 선군이 밤에 몰래 다녀간 상황을 그대로 말하였다가는 선군에게 해가 미칠까 염려하여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에는 사실이 들통 나지 않도록 얼굴빛을 고치거나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애쓰는 행동과 관련된 말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⑤의 '선선히'는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로 서늘하게' 혹은 '성질이나 태도가 쾌활하고 시원스럽게'라는 의미를 지닌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하릴없이'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이'라는 의미이므로 ㉠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애쓰는 상황이므로 '무릎을 꿇으며'가 들어갈 수 있다.

④ '속절없이'는 '단념할 수밖에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이'라는 의미이므로 ㉠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은 간절히 하소연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읍소(泣訴 :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하소연함)하며'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다.

### 19. 단어의 사전적 의미 이해 정답 ②

ⓑ의 '종시(終是)'는 '끝내(끝에 가서 드디어)'라는 의미를 지닌 말이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다.

ⓐ 도도하다 : 벅찬 감정이나 주흥 따위를 막을 길이 없다.
ⓒ 괘념 : 마음에 두고 걱정하거나 잊지 않음.

### [20~23] 지문 해제

**매체의 개념과 작동 방식에 따른 현대 사회의 모습**

매체의 개념 및 그 작동 방식에 대해 언급하면서, 매체 및 메시지와 관련된 현대 사회의 모습에 대해 다룬 글이다. 글쓴이는 맥루언과 보드리야르의 관점을 바탕으로 매체는 형식 그 자체가 메시지이며, 그 자체의 형식에 따라 작용하는 작동체라고 언급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대중매체와 관련된 메시지는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전달된다. 또한 그 메시지는 매체가 내장하는 일정한 코드에 따라 모델화된다. 그래서 실재계(實在界)는 정해진 코드에 지배된다.

매체는 모든 일들을 하나의 이벤트로 만들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하나의 구경거리가 또 다른 구경거리를 낳고, 하나의 기호가 또 다른 기호를 복제한다. 그리고 매체의 코드에 의해 사건화되고, 정형화된 모델에 따라 증식되는 여러 복제 속에서, 무엇이 실재이고 무엇이 복제인지 모호해진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도 모호해진다. 즉, 원본보다 더 생생하고 실재보다 더 실재적인 구경거리들을 만들어 내는데, 이를 '하이퍼 리얼리티'라고 부른다.

### 20. 문단의 성격 및 내용 전개 방식 파악 정답 ③

(다)에서는 매체가 내장하는 일정한 코드에 따라 모델화되는 메시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접하면, 그것을 매체의 코드에 따라 상투화된 모델로 변형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결국 실재계는 정해진 코드에 지배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다)는 매체의 코드에 따른 모델화와 그 영향에 대해 인과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대조적인 현상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것(③)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에는 대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

① 마셜 맥루언과 보드리야르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논의 대상인 매체를 제시하고 있다.
② 신문이나 TV를 보면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언급하면서 매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④ 매체가 모든 일들을 하나의 이벤트로 만들어 버리는 경향을 언급하기 위해, 있을 법한 사례인 유명한 야구 선수가 귀국하는 상황을 상정하여 논지를 이끌어 내고 있다.
⑤ '하이퍼 리얼리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논의 내용을 개념화하고 있다.

### 21. 구체적 정보의 이해 및 확인 정답 ②

제시된 지문에서는 매체가 가지는 속성이나 영향력과 관련하여 일정한 코드에 따른 모델화, 정해진 코드에 의해 지배되는 실재계, 그로 인한 실재와 복재의 모호성과 혼돈 상황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지문에서 ②의 '매체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①과 ⑤는 (가)에서, ③은 (나)와 (다)에서, ④는 (라)와 (마)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 22. 단어의 의미 이해를 통한 용법 변별 정답 ①

관형사 '어떤'은 대체로 의문문에 쓰여 사람이나 사물의 특성·내용·상태·성격이 무엇인지 묻거나, 주어진 여러 사물 중 대상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말이 된다. 즉, 물음(의문)의 속성과 관련된 의미나 용법으로 쓰인다.

그런데 ㉠의 '어떤'은 대상을 뚜렷이 밝히지 아니하고 이르는 말로 쓰인 말이다. ②, ③, ④, ⑤의 밑줄 친 단어들은 모두 ㉠과 같이, 관련 사항을 뚜렷이 밝히지 아니하고 이르는 용법으로 쓰인 말이다. 그러나 ①의 '어디'는 잘 모르는 어느 곳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로서, 그가 사는 구체적인 곳을 물어 보는 상황에 쓰인 말이므로 ㉠과 용법이 다르다.

② 언제 : 때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을 나타내는 말
③ 무엇 : 정하지 않은 대상이나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④ 어떻게 : 방법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말
⑤ 누구 : 가리키는 대상을 굳이 밝혀서 말하지 않을 때 쓰는 인칭 대명사

### 23. 정보의 분석적 이해를 통한 속성 변별 정답 ③

㉡의 '시뮬레이션(복잡한 문제나 사회 현상 따위를 해석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실제와 비슷한 모형을 만들어 모의적으로 실험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는 일)'은 다른 구경거리로부터 증식되는 복제 과정을 통해 원본보다도 훌륭한 복제를 만들어 내는 매체의 속성과 관련이 있다. ⓒ의 '실재계'는 일정한 코드에 따라 모델화되거나 복제되는 것과 상반된 실재의 세계라는 점에서 ㉡과 거리가 멀다.

ⓐ, ⓑ 메시지는 매체가 내장하는 일정한 코드에 따라 모델화된다고 언급했다. 즉, 메시지가 상투화된다는 것이다.
ⓓ 모든 일들이 매체를 통해 하나의 이벤트로 만들어져 구경거리가 되고, 이 구경거리가 복제 과정을 거치게 된다.

ⓔ 원본보다 더 생생하고 실재보다 더 실재적인 구경거리를 이르는 말인데, 이는 실재의 것이 아니라 복제된 것이다.

### [24~27] 지문 해제

**우주 개발의 필요성(당위성) 및 앞으로의 방향**

우주 개발의 필요성에 관한 주장을 소개한 다음, 우주 개발의 당위성 및 그 방향에 대해 언급한 글이다.

글의 전반부에서는 우주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재앙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다른 행성에 식민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 인류의 지적 발전을 위해 우주에 대한 관심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 우주 개발은 인류에게 정신적·물질적 차원에서 많은 가치를 제공한다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글의 중반부에서는 우주 개발의 당위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우주 개발에 드는 자금과 노력을 지구 안의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미래에 닥칠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은 지구 밖에서 찾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글의 후반부에서는 우주 개발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우주 개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밝히면서 그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주는 모든 나라들이 함께 탐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유 지역이며, 어느 국가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존슨의 경구를 덧붙이고 있다.

### 24. 글의 중심 화제 파악 정답 ③

글의 전반부에서는 우주 개발의 필요성에 관한 주장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런 다음 글의 후반부에서는 우주 개발의 당위성과 그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된 글의 중심 화제로는 ③의 '우주 개발의 정당성'이 가장 적절하다.

### 25. 구체적 정보의 이해 및 확인 정답 ③

넷째 문단에 '역사적으로 볼 때 탐사의 주된 목적은 새로운 사실의 발견이라기보다 영토와 자원, 힘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③은, 우주 탐사는 주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행해졌다는 내용이므로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① ⑤ 둘째 문단의 내용으로 보아, 여러 가지 과학적 성과들은 인류의 문명뿐 아니라 정신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과학 이론이나 기술은 결국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데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② 여섯째 문단의 '수천 년 동안 우주에 대한 인류의 꿈은 식어 갈 줄 몰랐다.'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첫째 문단의 '칼 세이건이 우려하는 것처럼 인류가 혜성이나 소행성의 지구 충돌과 같은 재앙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라는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다.

### 26. 글쓴이가 사용한 설득 전략 파악 정답 ③

제시된 글에서 글쓴이가 사용한 설득 전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은 넷째와 다섯째 문단이다. 우선, 넷째 문단에서 우주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과 노력을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 다음 다섯째 문단에서 그러한 주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인류가 미래에 닥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구 밖에서 찾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글쓴이는 다른 의견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면서 자신의 주장의 설득력을 제고하고 있으므로 ③이 가장 적절하다.

### 27. 단어의 의미 이해 및 유사한 말로의 대체 정답 ⑤

ⓔ의 '식다'는 '어떤 일에 대한 열의나 생각 따위가 줄거나 가라앉다'라는 의미로 쓰인 말이다. '사그라지다'는 '삭아서 없어지다'라는 뜻이므로, ⓔ의 '식다'와 그 의미가 약간 다르다.

① 절멸하다 : 아주 없어지다. 또는 아주 없애다. / 자취를 감추다 : 어떤 사물이나 현상 따위가 없어지거나 바뀌다.

② 한정하다 : 수량이나 범위 따위를 제한하여 정하다. / 국한하다 : 범위를 일정한 부분에 한정하다.

③ 부수적 : 주된 것이나 기본적인 것에 붙어서 따르는 / 부차적 : 주된 것이나 기본적인 것에 붙어서 따르는

④ 닥치다 : 어떤 일이나 대상 따위가 가까이 다다르다. / 직면하다 : 어떠한 일이나 사물을 직접 당하거나 접하다.

### [28~32] 작품 해제

**(가) 백석, 『여승』**

이 시는 일제 강점기에 어려운 삶을 살았던 한 많은 여인의 일생을 서사적 기법과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여인은 집을 나간 남편을 찾아서 어린 딸을 데리고 옥수수 행상을 하며 '금점판'을 떠돈다. 남편은 집을 나간 지 10년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고, 결국 어린 딸은 죽어 돌무덤에 묻고 여승(女僧)이 되었다.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가족 공동체의 붕괴와, 여인으로 대표되는 민중의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을 서사적 기법과 회상의 구성 방식을 통해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리얼리즘 계열의 시라고 할 수 있다.

- 주제 : 여승(女僧)이 된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

**(나) 김종길, 『성탄제』**

이 시에서 화자는 성탄제 무렵에 내리는 눈을 보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을

되새기고 있다. 화자는 어린 시절 한겨울에 심한 열병을 앓았는데, 아버지는 아들(화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눈 속을 헤치고 붉은 산수유 열매를 따오셨던 것이다.

이제 그 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은 시적 화자는, 그 어린 시절처럼 내리는 눈을 보며 아버지와 그 헌신적인 사랑을 그리워한다. 그리고 현대의 도시에는 그 때의 아버지가 보여 주었던 사랑이 없음을 안타까워한다.

- 주제 : 어릴 적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에 대한 그리움

**(다) 서정주, 『신부』**

민간의 설화를 시의 세계로 수용하면서 평이한 산문시의 형식을 통해 시간을 뛰어넘는 한 여인의 정절을 노래한 작품이다. 이 시에서 신부는 결혼한 첫날밤에 신랑의 오해로 말미암아 40~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모습 그대로 홀로 앉아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매운 재'가 되어 무너져 내리는 신부의 모습을 통해 재미 이상의 주제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이 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극적인 신부의 기다림과 신랑의 속물적인 오해의 대비이다. 신랑의 속물성에 의해 신부는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재로 무너져 내리지만, 정작 뉘우침에 괴로워하는 것은 신랑이 된다. 즉, 말없이 자신의 처신을 지켜 내는 신부의 매서운 정신적 세계와, 신랑의 속물적 세계가 대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을 통해 보여 주고자 하는 가치는, 한(恨)으로 대표되는 동양적 소극성 속에 숨겨진 영혼의 치열성과 그 아름다움이 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주제 :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과 여인의 정절

**28. 작품들 간의 공통적인 속성 파악** 정답 ①

(가)는 여승이 된 한(恨) 많은 여인의 일생을 회상을 통해 서사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그리고 (나)는 어른이 된 시적 화자가 내리는 눈을 보고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과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이다. 즉, (가)와 (나)에서는 인물에 대한 회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①이 답이다.

② (다)는 동양 여인의 소극성 속에 숨겨진 한(恨)과 정절을 노래한 작품으로 볼 수는 있어도,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노래한 작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나)에 드러나는 흰색과 붉은색의 대비는 내면적 갈등이 아니라,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29. 시어가 지닌 시적 기능의 유사성 파악** 정답 ④

(가)의 여인은 지아비가 집을 나간 지 10년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마저 죽어 돌무덤에 묻은 상황이다. 이러한 비극적 상황에 대해 '산꿩도 섧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산꿩'에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한 것이다.

선택지의 밑줄 친 시어 중 감정이 이입되어 있는 것은 ④의 '촉불'이다. 즉, '뎌 촉불 날과 갓트여 속 타는 쥴 모르도다(저 촛불도 나와 같아서 속이 타는 줄을 모르는구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단종의 유배로 인해 애태우는 화자의 심정을 무생물인 '촉불'에 이입하여 드러낸 것이다.

**30. 시어의 함축적 의미의 유사성 파악** 정답 ⑤

(가)의 '눈물 방울'은 고달프고 기구한 삶으로 인해 결국 머리카락을 자르고 여승이 될 수밖에 없는 여인의 한(恨)을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시어이다. (다)의 ⓐ~ⓔ 중 (가)의 '눈물 방울'과 함축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의 '매운 재'이다.

(다)에서 신부는 결혼한 첫날밤에 신랑의 오해로 말미암아 긴 세월 동안 그 모습 그대로 홀로 앉아 있었다. 40~50년이 지난 뒤 신부네 집을 지나던 그때의 신랑이 안쓰러운 생각에 신부의 어깨를 어루만지는 순간 '매운 재'가 되어 무너져 내린 것이다. 결국 '매운 재'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말없이 자신의 처신을 지켜 내는 신부의 매서운 한(恨)과 정절을 상징한다.

**31. 시상 전개 양상의 유사성 파악** 정답 ⑤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는, 과거에 대한 회상에서 현재의 상황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즉, 시장에 간 엄마를 기다리며 보냈던 유년 시절을 회상하다가 현재의 상황으로 돌아오는 양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나)의 [A]~[E] 중 과거에 대한 회상에서 현재의 상황으로 돌아오는 부분은 [E]이다. 즉, 시적 화자는 어린 시절에 열병을 앓던 자신을 위해 눈을 헤치고 산수유를 따 온 아버지를 회상하다가, '어느새 나도 / 그 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라고 노래하면서 현재의 상황으로 돌아오고 있다.

**32. 작품에 대한 이해 및 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③

(다)의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 그 어깨를 가서 어루만지니'라는 표현으로 볼 때, 세월이 지나도 신랑은 일말의 동정심도 갖지 않은 냉정한 사람이라는 ③의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첫날밤 신랑의 오해로 인해 신부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 모습 그대로 있다가 신랑에 의해 재로 무너져 내리는데, 이로 인해 신랑의 뉘우침과 괴로움이 한층 더 깊어진다고 볼 수 있다.

① 결혼 첫날밤 신랑의 오해로 인해 신부는 40~50년 동안 그 모습 그대로 있다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적절한 감상이다.

② 신랑은 첫날밤에 신부가 음탕해서 자신을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여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서 40~50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따라서 신랑은 여인의 정숙함을 중시하는 봉건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④, ⑤ 오해로 인해 빚어진 비극적인 상황이므로,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 자의적인 판단은 옳지 않다는 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 [33~36] 지문 해제

**춤과 소리(음악)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경지**

춤판에서의 음악(소리)과 몸짓의 조화에 대해 다룬 글이다. 춤은 발로 노닐고 음악은 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춤판이 되려면 손발이 잘 맞아야 한다. 즉, 절묘한 춤을 위해서는 소리를 내는 자(음악을 담당하는 자)와 발을 밟는 자(춤을 추는 자) 간의 호흡이 일치해야 한다.

예로부터 장구와 북의 장단 위에 피리, 대금, 해금 따위의 지속음을 내는 악기들이 춤음악을 담당했는데, 여기에 아쟁이 가세하고, 거문고나 가야금을 넣고, 북 대신에 징이 들어가 시나위 합주를 한다. 남도 무속의 선율에 기반을 두는 시나위의 묘미는 서로가 서로를 읽으며 심금을 울릴 때 살아난다. 결국 춤판은 춤이나 음악이 모두 능통해야만 가능한 판이라고 할 수 있다.

### 33. 구체적 정보의 이해 및 확인 정답 ③

셋째 문단에서 시나위 합주는 고전적인 삼현육각이 속화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즉, 고전적인 삼현육각에 아쟁이 가세하고, 거문고나 가야금을 넣고, 북 대신에 징이 들어가 시나위 합주가 되는 것이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① 첫째 문단에, 춤을 부른 소리는 장히 중한데, 그 중심은 장구라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② 셋째 문단에서, 춤을 추려면 지속음이 나는 악기를 써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④ 다섯째 문단의 '시나위 선율이 남도 무속의 선율에 기반을 두는지라 ~'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넷째 문단에서 '서로가 서로를 읽으며 심금을 울리는 것이 시나위의 묘미'라고 언급하고, '춤판은 춤이나 음악이나 너나없이 능통해야만 가능한 판'이라고 언급했다. 즉, 시나위 합주에서 춤과 음악은 서로 조화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 34. 내용 전개 양상에 대한 분석적 이해 정답 ①

㉠에서는 먼저 '장구'의 형태와 그 자태에 대해 언급한 후, 자연스럽게 장구 속에 담긴 속성과 관련하여 '고수(鼓手)'의 의미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런 다음 장구를 치는 고수의 역할과 관련하여 '박(拍)'의 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에 대한 설명으로는 ①의 '개념의 의미를 단계적으로 밝히고 있다.'가 가장 적절하다.

② 사물의 유래(由來 : 사물이나 일이 생겨난 바)를 밝힌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③ '장구', '고수', '박'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지,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분석한 내용이 아니다.
④ '장구'나 '고수'의 경우 소리의 구성 요소로 볼 수 없다.
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대상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며, 어떤 대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 내용도 아니다.

### 35. 구절의 문맥적 의미에 대한 이해 정답 ④

㉡의 '털 하나 안 들어간다'라는 말은, 쟁쟁한 명인들이 모여 결성된 최고의 시나위 드림팀에 대해 언급한 말이다. 기량이 탁월한 쟁쟁한 명인들이 모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세한 털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잘 짜인 구성, 즉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성이라는 의미이다.

결국 ㉡은 쟁쟁한 합주자들의 기량이 탁월하여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다. 따라서 ㉡의 문맥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 36. 상황에 적절한 한자 성어의 적용 정답 ④

문맥적 상황으로 보아, ㉢은 음악과 춤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는 경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의 '무아지경(無我之境)'으로, 이는 '정신이 한곳에 온통 쏠려 스스로를 잊고 있는 경지'라는 뜻이다.

① 남과 사이좋게 지내기는 하나 무턱대고 어울리지는 아니함.
② 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닥쳐온다는 뜻으로, 세상일은 순환되는 것임을 이르는 말
③ 한눈에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아득하게 멀고 넓어서 끝이 없음.
⑤ 말로 통하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일

## [37~41] 작품 해제

**(가)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작가가 말년에 고향으로 돌아와 생활하던 중의 곤궁한 생활상과 빈이무원(貧而無怨 : 가난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음)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노래한 가사이다. 인용된 부분에는 이웃집에 소를 빌리러 갔다가 소의 주인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돌아오는 상황이 매우 사실적으로 드러나 있다. 사대부로서의 지위도 없고 재산도 없이 농촌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소외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주제 : 농촌에서 어렵게 지내는 선비의 곤궁한 생활상 /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 삶의 자세

**(나) 서거정, 『독좌(獨坐)』**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 은거하는 삶을 노래한 한시(漢詩)인데, 단순히 자연과 벗하는 풍류적인 생활을 읊은 작품은 아니다. 시적 화자는 '진흙길'로 상징되는 부정적인 현실 세계 속에서도 세상에 나가 자신의 경륜을 펼칠 날을 은근히 기다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화자의 처지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아직 쓸모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거문고, 화로'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물에 젖은 '거문고'일지라도 소리가 나고 식은 '화로'임에도 불구하고 불씨가 남아 있다는 것은 겉으로는 쓸모가 없

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소용 가치가 남아 있는 화자 자신의 처지를 드러낸 표현이다.

- 주제 : 어수선한 시절에 때를 기다리며 지내는 은일지사(隱逸之士)의 삶

**(다) 이색, '백설이 자자진 골에 ~'**

국운(國運)이 기울어져 가는 고려의 현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노래한 시조이다. 초장에는 고려 말기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근심이 드러나 있으며, 중장에는 '매화'로 표현된 우국지사를 기다리는 안타까운 심정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종장에는 고려 왕조에 대한 지조를 지키고 있는 화자의 막막한 심정이 드러나 있다.

- 주제 : 기울어져 가는 나라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

**37. 작품들의 공통적인 속성 파악** 정답 ③

(가)의 화자는 농사에 필요한 소를 빌리기 위해 이웃집에 찾아갔다가 거절을 당하고 쓸쓸히 돌아오고 있다. (나)의 화자는 세상과 멀리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가운데, 세상에 나가 자신의 경륜을 펼칠 날을 은근히 기다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의 화자는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져 가는 가운데 외로이 홀로 서서 갈 곳 몰라 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가)~(다)의 공통점으로는 ③의 '화자의 고독한 처지가 작품의 바탕에 깔려 있다.'가 가장 적절하다.

**38. 두 작품에 드러난 표현상의 특징 대비** 정답 ⑤

(가)에서 화자의 주된 정서는 후반부에 드러나 있는데, '즐기ᄂᆞᆫ 농가(農歌)도 흥업서 들리ᄂᆞ다(즐기는 농부들의 노래도 흥 없게 들리는구나).'와 '세정(世情) 모른 한숨은 그칠 줄을 모ᄅᆞᄂᆞ다(세상 물정을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처럼 화자의 정서를 비교적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반면 (나)에서는 '물고기가 흔드는지 ~ 나뭇가지가 흔들린다(→ 세상과 떨어져 외롭게 지내는 상황에서의 마음의 동요).', '거문고가 젖었어도 ~ 아직 남아 있다(→ 아직은 소용 가치가 있는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며 세상에 나가기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 '하루 종일 문을 닫아걸고 있단다(→ 세상과 차단되어 지내는 막막한 정서).' 등과 같이 화자의 정서를 자연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① (가)는 대체로 시간적 순서나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을 뿐,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의 경우 한시(漢詩)의 특성상 경치를 제시하고 나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는 있어도,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가)는 대체로 시간적 순서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공간의 이동도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나)의 경우는 계절의 변화 양상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계절의 변화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9. 시상 전개 양상의 분석적 이해 및 적용** 정답 ④

(가)에 '다만 어제밤의 거넨집 져 사람이 / ~ / 간 이근 삼해주(三亥酒)을 취토록 권ᄒᆞ거든,'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소 주인이 '어젯밤에 건넛집 사람이 / ~ / 갓 익은 좋은 술을 취토록 권하였는데,'라고 말하면서 화자의 부탁을 거절하는 투로 한 말이다. 즉, 술병은 건넛집 사람과는 관련이 있어도 화자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④는 적절하지 않다.

① 농사를 짓기 위해 이웃집에 소를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하고 돌아온 상황이므로 적절한 배경 설정이다.

② '헌 먼덕 수기 스고 측 업슨 집신에 설피설피 물너오니(헌 멍석을 숙여 쓰고 축 없는 짚신을 신고 맥없이 물러나오니),'라는 내용과 연결된다.

③ '초경(저녁 7시부터 9시 사이)도 거읜ᄃᆡ(거의 지났는데),'라는 내용, '북창을 비겨 안자 ᄉᆡ비를 기다리니(북쪽 창문에 기대어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라는 내용과 어울린다.

⑤ 'ᄀᆡ 즈즐 뿐이로다(개 짖을 뿐이로다).', '무정ᄒᆞᆫ 대승(戴勝 : '후투티'라는 새)은 이ᄂᆡ 한을 도우ᄂᆞ다(무정한 새의 소리는 나의 한을 돋우는구나).', '즐기ᄂᆞᆫ 농가(農歌 : 농부들의 노래)도'라는 내용과 연결된다.

**40. 시행에 담긴 정서 및 의미 이해** 정답 ⑤

(나)의 화자는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혼자 지내는 처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 같이 '진흙길이 출입을 가로막으니' 화자는 하루 종일 문을 닫아걸고 있는 것이다. 즉, 화자는 자신이 아직은 소용 가치가 있다는 태도를 드러내면서 암암리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보이고 있지만, 진흙길이 출입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은 화자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부정적인 상황이나 장애물을 표현한 것이므로, 화자가 세속과 타협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나 있다(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① 소를 빌리기 위해 친절하다고 여긴 집에 허우적허우적 달려가는 상황이므로, 화자의 기대가 행동에 나타나 있다.

② '연년(年年)에'는 '해마다'라는 뜻이므로, 소를 빌리는 화자의 행위가 반복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③ 꿩고기와 좋은 술을 대접해 준 건넛집 사람에게 소를 빌려 주어 그 은혜를 갚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므로, 소 주인이 화자의 부탁을 거절한 이유가 나타나 있다.

④ 즐거워하는 농부들의 노래도 흥이 없게 들린다는 내용이므로, 화자의 낙담한 심정이 드러나 있다.

**41. 시어에 담긴 시적 의미의 유사성 파악** 정답 ⑤

(다)에서 ⓐ의 '매화'는, 나라(고려)의 운명이 기울어 가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고려 왕조를 지켜 낼 수 있는 우국지사(憂國之士)를 상징하는 시어이다. <보기>에서 이와 가장 유사한 시적 의미를 지닌 시어는 ⑤의 '초인(超人)'이다.

'초인(超人)'은 절망적인 현실 상황에서 시적 화자가 뿌린 '노래의 씨'를 수확하여 그것을 '목놓아 부르게' 될 인물, 즉 조국 광복을 위해 노력하는 지사나 미래의 후손과 관련이 있다.
① 닭 우는 소리 : 생명의 기척
④ 눈 : 일제 강점 상황의 암담한 현실

### [42~45] 지문 해제

**'정보 파놉티콘'의 개념 및 작동 양상**

현대 사회에서 작동하는 '정보 파놉티콘'의 양상을, 벤담의 파놉티콘과 대비하여 서술한 글이다. '정보 파놉티콘'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와 규율에 정보 수집이라는 의미가 합쳐진 것이다. 정보 파놉티콘에서의 '정보'는 벤담의 파놉티콘에서의 시선(視線)을 대신하여 규율과 통제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즉, 컴퓨터나 전자기기를 통해 얻은 정보가 간수의 시선을 대체하는 것이다.

전자 감시는 파놉티콘의 감시 능력을 전 사회로 확장했다. 일반적인 시선에는 한계가 있지만, 컴퓨터를 통한 정보 수집은 국가적이고 전 지구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벤담의 파놉티콘이 규율 사회에 적합한 감시의 메커니즘이라면, 정보의 파놉티콘은 통제 사회에 적합한 감시의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감시가 범사회적이고 일상적인 것이 되면서 간수가 중앙의 탑에서 주변의 감방을 감시했던 파놉티콘과 달리, 정보 파놉티콘에서는 그 '중앙'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졌다. 즉, 전자 감시는 벤담의 원형감옥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뛰어넘어 도시, 국가, 세계로 그 관장 영역을 넓혔고, 동시에 이를 관장하는 권력자가 위치하던 중앙의 감시탑과 같은 공간도 다양한 네트워크로 분산시켰다. 그리고 중앙의 감시 능력을 주변에서 나누어 가지면서 더욱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감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 42. 정보의 이해를 통한 추론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②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한 전자 감시는 정보 파놉티콘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전자 감시에서는 기존에 감시를 주로 담당하던 중앙이 네트워크를 통해 분산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중앙의 분산화가 감시의 느슨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앙의 감시 능력을 주변에서 나누어 가지면서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감시가 이루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더욱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복잡하게 얽힌 정밀한 감시 체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보 파놉티콘이 종국에는 감시 체계 자체를 소멸시킬 것이라는 ②의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① 정보 파놉티콘은 컴퓨터나 전자기기를 통해 얻은 정보가 간수의 시선을 대체한다. 따라서 정보 파놉티콘은 기술이 발달할수록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③ 컴퓨터를 통한 정보 수집은 국가적이고 전 지구적이기 때문에 전자 감시는 파놉티콘의 감시 능력을 전 사회로 확장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정보 파놉티콘은 교정 시설의 체계를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④ 컴퓨터나 전자기기를 통한 정보 파놉티콘의 감시는 범사회적이고 일상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보 파놉티콘은 감시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게 해 줄 것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⑤ 마지막 문단에서, 우리를 감시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경우 지하철, 직장, 관공서 등의 독립적으로 분산되어 존재하는 소규모 감시 네트워크에 의해 관장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정보 파놉티콘이 발달할수록 개인의 사생활은 보장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 43. 핵심 정보의 분석적 이해를 통한 대비 정답 ③

마지막 문단에서, 전자 감시(정보 파놉티콘)는 중앙의 감시탑과 같은 공간을 다양한 네트워크로 분산시키는데, 이것이 감시의 느슨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중앙의 분산화로 인해 벤담의 파놉티콘에 비해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감시(더욱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진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① 첫째 문단에서 언급한 '정보 파놉티콘'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 통제와 규율에 정보 수집이 합쳐진 것이라는 내용, 정보 파놉티콘에서의 '정보'는 벤담의 파놉티콘에서의 시선(視線)을 대신하여 규율과 통제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④ 마지막 문단에서 언급한 '전자 감시는 벤담의 원형감옥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뛰어넘어 ~ 중앙의 감시탑과 같은 공간도 다양한 네트워크로 분산시켰다(중앙의 분산화).'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셋째 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벤담의 파놉티콘이 규율 사회에 적합한 감시의 메커니즘이라면, 정보의 파놉티콘은 통제 사회에 적합한 감시의 메커니즘'이라고 언급했다.

### 44. 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이해 정답 ④

제시된 지문은 현대 사회의 전자 감시와 관련이 깊은 '정보 파놉티콘'에 대해 설명한 글인데, 전제적으로 벤담의 파놉티콘과의 비교·대조를 통해 그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ㄹ).

첫째 문단에서 정보 파놉티콘의 개념에 대해 언급하면서,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이들에게 규율을 강제한 메커니즘, 범죄자 프로파일링 기술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나 비디오카메라와 결합한 통계학으로 이어진 것,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죄수를 감시하면서 교화하는 프로그램 등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다(ㄴ).

셋째 문단에서 정보사회학자 롭 클링과 철학자 들뢰즈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ㄱ).

따라서 제시된 지문의 서술상 특징을 모두 묶으면 'ㄱ, ㄴ, ㄹ'이 되므로 정답은 ④이다.

### 45. 정보에 부합하는 구체적 사례의 적용 정답 ①

㉢은 대체로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감시가 이루어지던 과거와 달리, 감시를 담당하던 중앙의 분산화, 즉 감시 체계의 분산화로 인해 더욱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감시가 이루어지는 경향을 말한다. 이는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감시 체계가 주변으로 폭넓게 확장되어 나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①은 형사가 범죄 혐의자의 동태를 녹화하는 것이므로 업무 수행상의 편의성과 관련이 있을 뿐이지, 중앙의 감시 체계나 영역이 주변 범위로까지 확장되어 나간 경우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의 구체적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

②, ③ 버스를 운행하는 지역 어디에서나 운전자 보호를 위한 감시가 이루어지고, 초등학생 자녀들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감시 체계가 보편화되고 그 영역이 폭넓게 확장된 사례에 해당한다.

④, ⑤ 전자 학생증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해 감시 체계나 영역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확장된 사례로 볼 수 있다.

## [46~50] 작품 해제

**이범선, 『오발탄』**

6·25 전쟁이 남긴 상처와 전후(戰後) 상황에서 소시민들이 겪는 삶의 비애와 절망 문제를 다룬 소설이다. 작품의 후반부에서 철호는 동생의 구속과 아내의 죽음으로 극도의 절망 상태에 빠져, 앓던 이를 충동적으로 무리하게 뽑는다. 그 여파로 다량의 피를 흘리게 되고 점차 의식이 몽롱해져 가는 가운데 황폐한 서울의 거리를 방황하는 장면은, 심리주의 소설의 의식의 흐름 기법과 유사하다.

의식의 상실 속에서 설렁탕을 사 먹으려는 철호의 행동은 절망적인 현실에 대한 일종의 자포자기나 반항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택시 안에서의 자조적인 독백 장면은 주제 의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으로, 황폐하고 현기증 나는 현실의 거대한 부조리 밑에서 신음하는 인간의 실상, 출구 없는 현실의 절망적인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 주제 : 6·25 전쟁의 상처 및 소시민들의 삶의 비애

### 46. 소설의 개괄적 특성에 대한 분석적 이해 정답 ④

(가)와 (나) 모두 제시되는 사건의 시간은 순행적인 흐름이라는 점에서, ④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가)의 경우 시간의 흐름이 역전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해방이 되던 날의 상황 → 남한으로 넘어온 상황 → 6·25 전쟁 폭격 때 정신이상자가 된 철호 어머니의 상황 → "가자! 가자!" 소리를 지를 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철호 어머니의 상황'처럼 사건이 시간적 순서로 되어 있다.

①, ③ (나)는 '서울역 근처 음식점 → 음식점 옆 골목 → 택시 승차 → X경찰서 → (어디론가) 이동'과 같이, 공간적 이동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또한, (가)에 비해 짧은 문장을 사용하여 철호의 내면적 긴장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⑤ (가)는 해방이 되면서 남한으로 넘어온 후 6·25 전쟁 때 폭격으로 인해 정신이상자가 된 철호 어머니의 상황이 대체로 직접적인 서술에 의해 제시되어 있다. 이에 비해 (나)는 철호의 행동 묘사, 택시 안에서의 대화, 철호의 심리 서술이 혼재되어 있다.

### 47. 인물의 말에 담긴 심리 및 태도의 대비 정답 ②

철호의 어머니는 6·25 전쟁 폭격 때 정신이상자가 된 상황이다. 그런데도 ⓐ와 같이 정신이 온전했던 당시에 하던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아들딸마저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쨍쨍한 목소리로 "가자! 가자!"라고 말하는 것이므로, ⓐ는 실성한 상태에서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어머니의 욕망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나)에서 철호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인데, ⓑ처럼 어디론가 "가자!"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는 목적의식을 상실한 주인공의 절망감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 48. 발상 및 표현의 유사성 파악 정답 ④

㉠의 앞뒤에 있는 '게딱지 같은 판잣집들을 다닥다닥 붙여 놓은 이 해방촌이 이름 그대로 해방촌(解放村)일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내용에 주목할 때, '해방촌'은 그 용어의 의미와는 반대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서 엿볼 수 있는 발상 및 표현은 반어와 관련이 깊다. 밑줄 친 시어 중 ㉠과 발상 및 표현이 유사한 것은 ④(김지하, 「오적(五賊)」)의 '태평성대'로, 이는 부조리한 현실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49. 사건의 양상 및 내용의 분석적 이해 정답 ③

(가)에서, 나라를 찾은 날(해방이 되던 날) 어머니는 너무 기쁜 나머지 시집올 때 입었던 홍치마를 입고 춤을 추었다. 따라서 나라를 찾은 날 어머니가 시집살이의 서러움을 떠올렸다는 ③은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50. 단어의 문맥적 의미의 유사성 파악 정답 ③

㉡의 '기울이다'는 '비스듬하게 한쪽이 낮아지거나 비뚤어지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말이다. 선택지의 '기울이다' 중 ㉡과 가장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은 ③이다.

① ④ 정성이나 노력 따위를 한곳으로 모으다.

② 집중하여 듣다.

⑤ 형세가 이전보다 못하게 만들다.



# 수리 영역